

고용노동부, 자체 개발 '재난대응 훈련 시뮬레이터' 소스코드·제작방법 전면 공개

- 10. 27.(화) 안전한국훈련 실시, 기존 도상훈련을 시뮬레이터 기반으로 개편
- 타 부처·공공기관 훈련대응 강화를 위해 인공지능(AI) 개발안내서·참고영상 등 공개

고용노동부(장관 김영훈)는 2026. 10. 27.(화) 울산 동구 소재 KCC 울산 공장에서 「202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*」을 실시하면서, 훈련 시 활용한 자체 개발 '재난대응 훈련 시뮬레이터'의 소스코드 및 제작방법을 고용노동부 누리집(www.moel.go.kr)에 공개하였다.

* 고용노동부(중앙)·울산 동구(지방)·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공공) 등 16개 관계기관이 참여, 대형 화학공장에서의 화재·폭발 및 유해화학물질 누출 등 복합재난 상황을 가정한 합동 대응체계 점검 훈련

[훈련시스템 개편 및 시뮬레이터 주요 기능]

이번 훈련은 그간 서면 시나리오 낭독 위주의 도상훈련을 자체 개발 시뮬레이터 기반 훈련으로 대체하는 등 훈련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였다. 시뮬레이터는 별도 설치 없이 웹브라우저(PC·모바일)에서 구동되는 단일 파일(HTML) 프로그램으로, ▲AI 성우 기반 사전 역할연습 모드, ▲실시간 재난 상황 모니터링 및 실전 훈련보조(프롬프트) 모드, ▲직책별 임무카드·비상 연락망 조회 기능을 탑재하였다.

[타 부처·공공기관 훈련대응 강화를 위한 소스코드·개발안내서 등 공개]

고용노동부는 중앙·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의 재난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각 기관별 재난유형 및 위기관리 매뉴얼 등에 맞춰 자체 시뮬레이터를 제작·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*를 누리집에 첨부·공개하였다.

- * [공개·첨부 자료] ① 훈련 시뮬레이터 소스코드(HTML 원본 및 실시간 연동 스크립트),
 ② AI 코딩 에이전트를 통해 자체 개발 가능하도록 작성한 개발안내서 및 매뉴얼,
 ③ AI 활용 훈련 종합브리핑 영상·사용가이드 영상 등 참고자료

오영민 안전보건감독국장은 “이번에 개발한 자체 훈련 시뮬레이터의 소스코드와 제작방법을 전면 공개하여 중앙·지방정부 및 공공기관 등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, 대규모 사고 발생 시 각 기관의 재난대응 역량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”라고 밝혔다.

붙임. 2026년 고용노동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제 훈련 사진

담당 부서	안전보건감독국 화학사고예방조사과	책임자	과 장	윤현욱 (044-202-8965)
		담당자	사무관	유영훈 (044-202-8968)
		담당자	전문위원	김상범 (044-202-8972)



- (일시/장소) 2026. 10. 27.(화) 15:00~16:00 / KCC 울산공장
- (훈련내용) 훈련 시뮬레이터 기반 중앙사고수습본부 가동 및 16개 관계기관 합동 현장 대응

* 본부 토론훈련(시뮬레이터 가동) 및 현장 합동훈련 연계



[사진 1] 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토론훈련
(자체 개발 웹 훈련 시뮬레이터 실시간 운용)



[사진 2] 시뮬레이터 연동 대화면 종합상황판
(3열) 브리핑 및 실시간 상황판단회의



[사진 3] 복합재난 현장훈련 - 대형 화학창고
화재·폭발 합동 방수 및 방제 작업



[사진 4] 복합재난 현장훈련 -16개 참여
관계기관 합동 점호 및 현장 강평